

물리적 질병의 이치를 알면 치유가 보인다

| 김병항 명심의학학술원장 |

최근 심신의학을 많은 병원에서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음은 몸의 질병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마음을 밝혀 놀라운 치유의 장을 만드는 현장을 보십시오(편집자 주). —

■ 소장(小腸)의 병리

腸

이 (창자 장) 자는 살육(月) 자와 별양 자로 되어있어서 창자는 햇볕처럼 따뜻해야 하는 장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장의 사리적(事理的) 병리

소장은 몸의 재산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장기로서 섭취를 위해서 먹은 음식물이 청주와 같은 미세한 분자로 분해돼야 하며 분해가

잘 되려면 효소인 장액(腸液)과 췌액(膵液)도 충분해야 하지만 장이 따뜻해야 한다. 그러니까 탁주 양조장의 술독이나 간장공장의 장독과도 같은 게 장기인 것이다. 술이나 간장이 잘 양조되려면 효소인 곡자나 메주도 필요하지만 술독이나 장독이 정상적으로 따뜻해야 제대로 발효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영양소의 섭취를 위해서는 소장이 항상 따뜻해야 하므로 소장이 차지면 음식물의 발효가 안돼서 영양소의 섭취가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소장이 차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있는데 재산을 모으려는 일에 차질이 발생하여 마음이 상하여 기분이 나쁘고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면, 몸의 재산인 영양소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장기인 소장에서 병이 발생하게 된다.

소장의 물리적(物理的) 병리

재물을 취하려는 일이 여의치 않거나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몸에 산(酸)이 과다해져서 체질이 산성화되는데다가, 재산을 모으는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임으로써 소장의 일부분(환부)의 조직세포들이 기를 상실함으로써 차지고 굳어지고 커진다. 이것이 소장의 물리적 병리이다. 그러니까 소장의 발병 원인은 결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따뜻함을 잃어 냉해지기 때문이며, 냉화의 근본 원인은 마음의 냉화 때문이다. 그럼으로 따뜻한 마음만 회복되면 말기의 암도 저절로 낮기 마련이다.

소장암 자연치유 사례

1988년 초 겨울 부인에게 이끌려 찾아온 50대 초반의 제지원료공장 사장 이씨. 그는 3남매의 장남으로서 소년시절 부친과 사별하고 편모 슬하에서 가난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자랐고 고학으로 대학까지 나오고 자수성가한 노력이였다. 그의 병력은 소장이 막혀서 고향 친구인 의학 박사의 권유로 막힌 부분 30센티 가량을 절제했는데 재발하여 10센티 가량 더 잘라냈다. 그런데 또다시 소장이 막혀서 원장의 직접 진찰을 받아보니 소장암이었다. 본인은 물론이고 온가족이 절망에 빠졌고 본인은 죽음을 대비해야 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재산목록을 겨우 대학 1년생인 장남과 부인에게만 꺼내놓고 유언이나 마찬가지로인 만일에 대비한 당부를 하였다. 뒷날 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그는 재산을 모으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가족으로부터도 구두쇠 소리를 들을 만큼 축재욕이 남달리 강했다. 소시부터 가난을 뼈저리게 겪은 탓도 있겠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공장 직공들로부터 구두쇠사장으로 통할 정도였다. 심지어 직공들이 기계 부속품이나 물건들을 몰래 빼돌려 팔아먹곤 하였다. 게다가 못사는 동생이 있어 끊임없이 돈을 꾸어달라고 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고 재물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이 몹시 쓰이던 차에 소장이 막히는 병이 발생하였다. 나는 그에게 부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자연의 이치로서 계도하였다.

병리와 계도치료의 연구가들을 위하여 그에게 들려준 소장이 막히는 이치를 대강 기술해 둔다.

- 6~7m나 되는 긴 소장은 들판을 흐르는 하천이나 다름없다. 하천의 물은 막힘이 없이 계속 흘러가야 주변 전답에 물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다.
- 하천 중간이 막혀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것은 욕심 많은 농부가 자기 전답에 물을 많이 들고자 뚝(보)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 이런 경우, 하류지대 전답 주인들의 항의와 분쟁으로 하루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 이와 같은 이치에서 보면, 하천이나 마찬가지로 소장이 막히는 것은 하천을 막는 농부처럼 재산을 모으려는 욕심이 지나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신경이 과도하게 쓰임으로써, 마음의 모습대로 소장이 막히게 된다.
- 소장의 내강이 점점 좁아져서 결국에는 막혀버리게 되는 생물학적 요인은 그 부위의 조직세포들이 손실되어 냉화됨으로써 체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리적 이치와 생리적 이치에다가 분복(分福)의 이치, 약의 진리 등의 강론을 듣는 동안 자신의 소장이 막히게 된 근본 원인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암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금까지 암이 공포의 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분노심, 근심, 원망심, 증오심, 악독심, 초조심 등 질적 감정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실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병이 나으려면 마음의 평화가 회복돼야 하고 마음이 편해지려면 질적 감정이 해소돼야 하고 질적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체념과 관용

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 환자도 그의 부인도 2시간 동안의 강의를 듣고 화색이 만면해서 돌아갔다. 생리란 참으로 신기해서 그는 그날 저녁식사부터 아무런 불편 없이 하게 되었고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되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은 병리강의를 듣고서 절망이 희망으로, 고민이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수일 후 부인으로부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 경리아가씨가 일부러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였다. “사모님! 우리 사장님이 판사님이 되셨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원들에게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이 같은 심적 변화가 그의 병을 저절로 낫게 하였던 것임은 물론이다.

■ 피부(皮膚)의 병리

皮

피부의 병증에는 가벼운 증상에서 암까지 다양한 증상이 있으나 현대의학은 원인을 잘 알지 못해 거의 고치지 못하고 있다.

피부의 사리적(事理的) 병리

몸을 쌓고 있는 피부는 물건을 쌓는 보자기와도 같다. 부드러운 보자기는 촉감도 좋고 물건을 쌓기도 좋아서 누구나 갖고자 하지만 거칠고 뻣뻣한 보자기는 촉감도 안 좋고 물건을 쌓기도 불편해서 누구나 갖기를 싫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도 따뜻해서 부드러우면 접하기도 좋고 포용력도 있어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차서 거칠

고 뻣뻣하면 접촉하기도 거북하고 포용력도 없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기 마련이다. 성품이 온유(溫柔)한 자는 겸손해서 여간해서는 화(火)를 내지 않지만, 성품이 차서 거칠고 뻣뻣한 자는 교만해서 사소한 일에도 흥분해서 화(火)를 잘 낸다. 분노하면 화기가 체외로 분출으로써 피부의 세포들이 기를 잃게 되어 차지고 뻣뻣하게 굳어진다. 따라서 피부에 생기는 병증의 원인은 분노심 때문이다.

피부암으로 사망한 수양대군

조선왕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세조)이 왜 피부암으로 죽어야 했을까! 그는 등극 후 다방면으로 많은 치적을 남긴 큰 인물이었으나 노하기 쉬운 성품인데다가 등극 과정에서 혈육들과 여러 충신들을 살육했어야 했다. 그럼으로 왕위 찬탈과정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인간적 고뇌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의 왕위도 언제 찬탈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내심 떨어야 했다. 이로 인해 세조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분노와 의심과 경계와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런 와중에 피부암(종기)에 걸려서 결국 그 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야말로 분노 때문에 피부암이 발생한 표본적 사례라 하겠다.

피부의 물리적(物理的) 병리

피부는 사람의 성품이나 감정상태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이다. 성품이 차고 거친 사람은 피부가 거칠고,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평소에는 피부의 색깔도 세포들도 정상이지만 분노심이 유

발되면 색깔이 벌겋고 세포들이 커져서 부어오른다. 이것이 피부의 물리적 병리이다. 서양의학에서는 피부의 발진(發疹)이 열(熱)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근본 원인은 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냉화 때문이다. 화를 내면 겉으로는 열이 발산되지만 내면은 찬 것이다. 분노한 사람의 마음이 따뜻할 리가 없다는 이치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발진(종기)의 원인이 열 때문이 아니고 세포들의 냉화 때문임을 종기의 농즙(고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화농(化膿)한 고름은 뜨거운 근육 속에서 나오는데도 뜨겁지 않고 차다.

안면 흑반(黑斑) 자연치유 사례

자로 하여금 병리연구에 심취하게 한 세 번째 인물이 이 처녀이다. 그녀는 1984년에 출판한 필자의 초보작인 교성요법 책에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전혀 쓰여 있지 않더라고 해서 전화로 자신의 병인을 물어왔다. 찾아온 24세 미모의 처녀인 정양의 사연은 특이했다. 그녀는 얼굴에 직경 1센티 가량의 얇은 검은색 반점이 있었다. 그것이 생긴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희미하게 생기기 시작해서 차츰 색깔도 진해지고 면적도 조금씩 커졌다는 설명이었다. 참고로 그녀를 계도로서 치료하기 위한 대담내용을 대략 적어 본다. 첫눈에 정양의 미모와 총명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사리적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이 아가씨는 아마도 어릴 적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쁘고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듣다보면 어릴 적에는 마냥 즐겁기만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교만심으로 변하기 쉽다. 교만심에 차면 마

음이 차서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이 생겨서 남을 무안하게 하고 마음을 멍들게 하는 말을 예사로 하게 된다.”

이 강론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과 같은 질문이 튀어나왔다.

“저는 전문대학을 나와 국내에서 손꼽히는 큰 체육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우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제가 대표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죄가 됩니까?”

강의를 듣다보니 얼굴에 반점이 생긴 까닭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으로 들렸던 모양이었다.

“그게 왜 죄가 되겠는가. 불이익을 당하면 부당함을 항의한다는 것은 정당한 처사이지. 하지만 항의를 받는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여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는다면 얼굴에 멍칠을 당하고 마음을 멍들게 할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납득이 되는 것 같았다.

“다른 동료들은 다 참고 있는데 유독 정양이 나서서 사장에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몸에 배인 교만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교만심은 자신의 용모가 남달리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멍칠과도 같고 멍과도 같은 검은 반점이 하필이면 얼굴에서 생기는 이치가 무엇이겠는가. 교만심이 생긴 원인이 얼굴이 잘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타이르자 총명한 여성이라서 이해가 빨라 쉽게 납득되는 눈치였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다시 물었다.

“내 말이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남의 얼굴에 멍칠을 하거나 마음을 멍들게 하는 나쁜 습성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적극성에서 자연히 치유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솔직하게 대답해 봐요. 마음에 상처를 입힌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니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친구를 만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를 해봐요. 사람의 마음이란 아무리 얼어붙었던 마음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통하는 법이고, 그렇게 하면 화해가 되어져서 더 다정한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연습이자 훈련이 될 것이다”

그녀는 화색이 만면해지고 희망이 생겨 기쁨이 넘치는 듯했다. 정양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신앙의 목적은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행복을 달라고 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항상 더럽혀지기 마련이므로 신앙을 통해 더럽혀진 마음을 씻기 위함이다. 신앙이란 특정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바른 진리를 믿고 실천하기 위한 훈련이다. 정양은 앞으로는 마음속에 뿌리내린 교만심을 쫓아내고 따뜻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이다.”

정양은 매우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갔었다. 그 후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찾아와서 “선생님 검은 색은 없어졌는데 대신 붉은 색이 나타나서 고민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정양의 반점 색이 멎든 것 같았던 것은 모세혈관에 피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붉은 색으로 변한 것은 모세혈관에 피가 통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으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끝)

- 이 글은 출간 준비 중인 '명심의학 교본'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김병항** 원장 | 명심의학학술원장. 50을 훨씬 넘긴 나에 뜻밖의 동기로 병리연구에 심취하게 된 김병항씨. 그후 그는 20여년 세월동안 혼신의 정력을 쏟아 <교성요법(橋性療法)>과 <명심의학>이라는 책을 펴냈으며 최근 <암백서>를 새롭게 완성했다. 질병과 질환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그는 늘 말하며, 한자 속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새로운 문자의학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명심의학(明心醫學) 강좌

<교성요법(橋性療法)>과 <명심의학>, <암백서>를 새롭게 완성한 진정한 자연요법가의 공개 강의

강 사 : 김병항 원장(명심의학학술원장)

장 소 : (공개강좌) 미내사 강의실, (본강좌) 명심학술원(연신내)

일 정 : (공개강좌) 2008.7.30일(수) 19시~20시

(본강좌) 주간반 3개월(월,수) 15:30~17:00, 야간반 3개월(화,목) 19:00~20:30,

주말반 4개월(토) 15:30~17:30 - 수시모집

참가비 : (공개강좌) 미내사회원 5천원, 비회원 7천원/ (본강좌) 45만원

강좌내용 : ■ 생명학(生命學) 1. 생명(生命)이란 무엇인가. 2. 정자(精子)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3. 생명체의 혼(魂)과 백(魄) 어떤 존재인가. 4. 세포의 핵(核)의 두 염색체가 무엇인가. 5. 심성(心性) 유전자가 어떻게 염색되는가. 6. 기능 재능 유전자가 어떻게 염색되는가. 7. 마음(心)의 실체가 무엇인가. 8. 마음(心)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9. 의사(意思)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10. 심리(心理)가 몸에 어떤 영향 끼치는가. 11. 신경(神經)을 쓴다란 무슨 말인가. 12. 심정(心情)이란 무엇을 이룬인가. 13. 감정에 따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14. 감정에 따라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15. 심신 일체성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16. 성격(性格) 형성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7. 정자의 성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8. 심(心)과 뇌(腦)가 어떤 관계인가. 19. 어떤 것이 완전한 죽음인가. 20. 사후에 혼백이 각각 어디로 돌아가는가. ■ 심기학(心氣學) 21. 심기(心氣)란 무엇인가. 22. 기(氣)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23. 공기(空氣)가 몸의 기가 되는 것인가. 24. 동맥혈의 점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5. 마음의 실체 무엇에 의해서 존속되는가. 26. 심장의 박동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7. 감정 따라 기분(氣分)이 어떻게 변하는가. 28. 만족과 불만족 어떤 것을 이룬인가. 29. 기분(氣分)이 상하면 왜 몸이 차지는가. 30. 마음이 상하면 혈액이 어떻게 되는가. 31. 심리 따라 기색(氣色)이 어떻게 변하는가. 32. 심리 따라 분비물 어떻게 달라지는가. 33. 기겁 기탈 가진 기질 어떤 현상인가. 34. 기절시에 뇌의 기능이 왜 멎는가. 35. 기절하면 왜 의식을 못하는가. 36. 식물인간 어떤 경우에 회생되는가.

-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